



(Diachronic synopsis)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대(代)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된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 또 현세적인 복을 갈망하는 손자 야곱에게 3대에 걸쳐 해주셨습니다. 현세적 복을 갈망하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12지파를 형성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손자 야곱은 실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을 속여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아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지팡이 하나를 들고 외삼촌의 집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북부 메소포타미아 밧단 아람의 주요 성읍인 하란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나가는데 그를 기다리는 것은...

Contents

1. 인간, 야곱은 누구인가? 2. 자신의 삶의 길을 가는 야곱 3. 야곱을 능가하는 라반 4. 나는 어느 때에....야곱의 사업프로젝트 5. 어림없는 소리 6. 압복강 나루에 홀로 남은 야곱 7. 어떤 심리분석과 야곱의 자화상

돌아가면서 읽기 (Reading one by one)

1

인간, 야곱은 누구인가?

성경의 구약 인물 가운데 일대기가 비교적 자세히 보존된 인물이면서, 입체적인 1) 삶을 살다간 사람 둘을 꼽으라면 야곱과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다윗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 역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다면 야곱은 현세의 복을 추구하며 치열하게 자신의 삶과 싸우며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공을 일구어낸 칠전팔기의 도전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쌍둥이 둘째 아들로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모태에서 장자 출생의 기회를 놓친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매우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팔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27.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군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28.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9. 야곱이 죽을 수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30.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32.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창25:27-34)

그는 장자 권리를 경홀히 여기는 형, 에서의 부주의함과 육체적 굶주림을 교묘히 이용하여 출생 시 간발의 차이로 놓쳐버린 장자의 권리를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의 싸움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끝날 2라운드의 싸움은 이삭이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2라운드의 다툼도 막이 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눈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므로 죽기 전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에서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3.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창27:2-4)

이 말을 곁에서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 나가자 즉시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8. 그런즉 내 아들이 내 말을 좇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9.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10.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창27:8-10)

야곱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는 털복숭이였고 자신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니 잘못하다가 발각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염려되었습니다.

"11.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찌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창27:11-12)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리브가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13. ... 내 아들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창 27:13)

리브가는 야곱에게 가서 염소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야곱에게 입히고, 잡은 염소의 가죽으로 야곱의 목과 손에 꾸미고, 그의 손에 별미로 요리한 염소 새끼 요리를 들려 이삭에게 나아가게 했습니다. 야곱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창27:19)

그러자 이삭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창27:20a)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창27:20b)

이삭은 에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에서의 몸을 만졌습니다. 야곱의 손을 만진 이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창27:22)

이삭은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가서 입 맞추었습니다. 에서의 옷 향취를 맡은 이삭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27. ...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와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8.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27:27-29)

2

자신의 삶의 길을 가는 야곱

에서가 빼앗긴 장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더이상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곳에 이를 때에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3. ...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
(창28:13-15)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벰엘이라 짓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20.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21.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창28:20-22)

3

야곱을 능가하는 라반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라반에게서 한 제의를 받습니다. 비록 자신의 생질이나 공으로 일할 수 없으니 보수를 정하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품삷에 대하여 곱고 아리따운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라반의 집에서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라헬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7년째 되는 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라헬을 대신하여 안력이 부족한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아마도 잔치 동안 레아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독한 포도주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²⁾ 라반은 그날 밤 레아를 데려왔고 야곱은 들어갔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자신을 속였는지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라반은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창29:26)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풍속대로 신부를 맞이하는 7일의 기간을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하고 7년을 더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7일 후 라헬에게 들어갔습니다. 당시의 결혼 관습대로 레아에게 라반의 하녀 실바를 여종으로 주었고 라헬에게는 하녀 빌하를 여종으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7년을 더 봉사해야 했습니다. 라반은 탐욕이 많고 잘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

나는 어느 때에....야곱의 사업프로젝트

라헬은 야곱과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태가 열리지 않자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레아도 유다를 낳은 후 태가 닫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의 두 아내와 여종 둘에게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³⁾

레아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블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첩들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의 종 실바가 갓과 아셀을 그리고 라헬의 종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낳은 때에 본토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라반은 다시 야곱을 자신에게 머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으로 인해서 자신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말했습니

다.

"28. ...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창30:28)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털어냈습니다.

"30.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떼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창30:30)

라반은 야곱에게 무엇을 품삯으로 줄 것인지 물었습니다. 야곱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라반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31. ...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32.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 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 내리니 이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삯이 되리이다"(창30:31-32)

야곱은 양을 칠 때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리어 내어 자신의 삯으로 달라고 말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요구하는 짐승들을 가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고 남겨진 희고 고운 양떼들을 야곱에게 주어 돌보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자신의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양들이 물을 먹으러 개천에 모일 때 새끼를 배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흥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고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양들이 새끼를 뱉을 때 그 무늬를 낸 가지를 쳐다볼 수 있도록 양떼를 향하게 하여 개천 물구유에 세워놓았습니다. 약한 양이 새끼를 배면 가지를 치우고 실한 양이 새끼를 배면 눈 앞에 가지를 두었습니다.

야곱의 사업은 적중했습니다. 양들이 모두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되었고 실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심히 풍부하여 많은 양떼와 약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고 노비도 거느렸습니다. 그는 성공했으며 거부가 되었습니다.

5

어림없는 소리

그러나 라반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에 늘 제자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인 라반이 전과 같지 않음을 토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은 분명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가고 집은 비어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을 약대에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 그 아버지 이삭의 집을 향하여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때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⁴⁾을 훔쳐 나왔습니다. 그렇게 3일을 달려왔을 때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그 형제들과 함께 7일을 달려 길르앗에 도착하여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이 대단한 삼촌 라반에게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또 얼마나 성실하게 달려왔는지를 말했습니다.

“38. 내가 이 이십년에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9.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 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40.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불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41.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이십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 사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육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열 번이나 번역하셨으니

42.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창31:38-42)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짐승들을 데리고 도망 나오자 야곱과 상호 언약을 맺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언약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하여 그 돌기둥에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딸을 박대하지 않을 것과 다른 아내를 얻지 말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제사를

드린 후 라반의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고 경야(經夜) 한 후에 라반의 축복을 받으며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가족과 짐승과 육축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6

압복강 나루에 홀로 남은 야곱

야곱은 압복강 근처의 마하나임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은 그러나 형,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야곱은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 게 자신에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음을 고하고 은혜를 입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만약 에서가 자신을 칠 경우를 대비해서 한 떼라도 모면하기 위하여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11.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옵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창32:10-11)

이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가축을 예물로 택했습니다. 암염소 200, 수염소 20, 수양 20, 젖 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 약대들,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과 그 새끼 나귀 10을 각각 떼로 나누고 각 떼를 멀리 떨어지게 하고 에서를 만나면 예물이라고 말하고 야곱은 자신들 뒤에 있다고 말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는 예물의 떼를 뒤따라 둘째, 셋째로 이어지는 짐승의 떼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당부했습니다. 야곱이 고생해서 모은 재물을 모두 잃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한 떼를 에서가 치면 다른 떼는 피하려고 했습니다. 예물을 앞서 보내고 야곱은 무리 가운데서 밤을 보내다가 그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 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곳에 홀로 남아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이가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를 붙들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어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26. ...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창32:26a)

야곱이 환도뼈에 타격을 받은 채 말했습니다.

" ...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32:26b)

그때 그사람이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창32:27)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 ... 야곱이니이다." (창32:27)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28.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창32:28)

야곱이 물었습니다.

"29.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창32:29)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창32:29)

그는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전되었다고 말하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7

어떤 심리분석과 야곱의 자화상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은 속임수, 세속적인 삶의 방식, 형제애의 결핍, 그리고 인간적인 성취욕 등의 복잡한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iscovering the Enneagram*〉⁵⁾를 통해서 성경의 인물의 심리를 연구한 한 이관직 목사는 야곱의 성공 지향적인 삶의 양식을 형 에서와 경쟁하는 지위 추구형(Status Seeker)으로 보았습니다. 야곱의 삶의 양식은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여 달리며, 경쟁하고, 또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25시를 달리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축복받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이는 야비한 그였지만 야곱은 성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했던 노력형 인간이었으며,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자수성가하기 위하여 뛰어다닌 25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다리기 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 했으며, 더 강한 자에게 허무하게 속아 살아왔지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실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고 마침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살아간 삶의 한 단면을 통해서 그의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말년에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아들 요셉을 얻었습니다. 노년에 얻은 그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는데 형제들은 야곱이 자신들보다 더 사랑하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언행 또한 불평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꾸는 꿈을 형제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6.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 꿈을 들으시오

7.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창37:6-7)

형제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왕이 되어 자신들을 다스리겠냐고 나무랐습니다. 요셉은 더욱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고 아버지

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 내가 또 꿈을 꾸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창37:9)

그런데 요셉의 그 꿈은 비범한 꿈이었으며 또한 장래를 예언하는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아비 야곱도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10.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창37:10)

그러나 그렇게 꾸짖는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꿈을 꾸고6) 형제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형제들에 의해 은 20 개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그 상고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애굽에 이르자 그 미디안 사람7)이 요셉을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았으므로 후에 요셉은 바로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므로(창39:2)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 그 집의 소유를 맡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창39:5)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였고 그 유혹을 물리친 요셉은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한 혐의로 그의 남편에게 고발되었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 안에는 감옥이 있었는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창39:20) 그곳에 애굽 왕 바로의 떡 굶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왕께 죄를 범하여 요셉이 갇힌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함께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바로의 궁에 복직되었고 후에 요셉은 바로의 궁으로 불러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하룻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일곱 마리가 하룻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는데 그 뒤에 일찍이 본 일이 없는 일곱 마리의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하룻가에서 또 올라와 먼저 올라와 풀을 뜯고 있는 살찐 일곱 암소를 먹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로가 다시 잠이 들자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무성

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와 먼저 나온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고민했습니다. 그가 꾸은 꿈은 일곱 마리 소와 일곱 이삭의 꿈이었는데 애굽의 어떠한 술객과 박사라도 능히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감옥에 함께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 바로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바로의 꿈이 하나님께로 난 것임을 알았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애굽 땅에 7년간의 큰 풍년이 있고 난 뒤 7년간의 엄청난 기근이 찾아와 애굽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다가올 엄청난 기근의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이윽고 애굽에는 7년의 대풍이 있고 난 뒤에 7년간의 무서운 흉년이 온 땅을 덮쳤습니다. 흉년이 덮치자 애굽 사람들은 7년간 이어진 대풍의 기억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참담한 기근은 애굽과 온 나라들을 휩쓸었습니다. 요셉의 고향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덮쳤습니다. 7년간 곡식을 비축한 애굽의 바로 외에는 온 땅에 먹을 양식이 말라버렸습니다. 애굽 백성과 온 땅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바로에게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창42:56) 바로는 백성들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의 지시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야곱도 양식을 사기 위해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그의 형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돌려보내며 지혜를 내서 그의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건너오게 하고 베냐민과 야곱을 만났습니다. 이때 야곱이 요셉을 만난 후에 애굽 왕 바로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 이처럼 회고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백 삼십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창47:9)

이것은 야곱의 마음 한 구석에 감추었던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맨손으로 성공하기 위하여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야곱의 삶은 인생과 싸우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1)입체적 : 이는 문학적 표현으로서 소설에 등장하는 단순한 성격의 '평면적 인물'에 대조되는 인물로서 주인공에 적용되는 인물의 모습이다. 입체적 인물'은 독특한 개성과 복잡한 인물 성격을 가지고 이야기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그려지는 인물이다.

2)성서배경주석, 존 월튼,빅터 매튜스, IVP p.67

3)레아와 여종 실바, 라헬과 여종 빌하이다.

4)드라빔

이것은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신상으로서 라반이 섬겼던 가족신이였다.

5)성경인물과 심리분석, 한국목회상담연구소, 이 관직,p 34

6)요셉의 꿈: 창세기 37,39-41장

야곱은 밧단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1명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에게서 (1) 르우벤 (2) 시므온 (3)레위 (4) 유다 (9) 잇사갈 (10) 스블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았다. 그리고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에게 (7) 갓 (8) 아셀을 낳았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11)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라헬의 시녀였던 첵 빌하에게 (5) 단 (6) 납달리를 낳았다. 야곱은 요셉을 낳았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겼다. 그는 라반과 자신의 품삯에 대하여 합의했다. 그리하여 양(羊)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리고 염소 가운데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자신의 것으로 삼겠다고 최종합의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부유해졌으며 그것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노중에 그의 아내 라헬이 에브랏 얼마 못 미치는 곳에서 요셉의 동생 (12)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 라헬은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다.

야곱은 이삭이 살았던 가나안으로 돌아와 살았다. 야곱에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다른 아들보다 더욱 사랑하였다. 이를 시기한 형들은 요셉이 꿈으로 인해 더욱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넘겼다. 그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다시 팔았다.

한번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 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옷자락을 붙들고 동침하기를 요구했다. 요셉은 그 손을 뿌리치고 나왔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요셉의 옷이 버려져 있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던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때 바로에게 죄를 범한 두 관원이 요셉의 옥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 두 관원이 각각 꿈을 꾸게 되었고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해주었다. 술 맡은 관원의 꿈은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

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자신의 손에 바로의 잔이 들려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포도송이를 따서 그 즙을 잔에 부어 바로에게 드리는 꿈을 꾸었다. 요셉은 포도 나무의 세 가지는 3일이라고 말하고 사흘 안에 복직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주어 자신을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떡 말은 관원도 꿈을 꾸었다. 그는 흰 떡 세 광주리가 자신의 머리 위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구운 떡들이 있는데 새들이 그것을 먹는 꿈을 꾸었다. 요셉이 이 꿈에 대하여서도 해몽해주었다. 세 광주리는 3일인데 사흘 안에 바로가 머리를 꿇고 나무에 달아 그 관원은 새들이 그를 뜯어 먹게 될 것이라고 했다. 3일 후 바로의 탄일이 되었다. 두 신하는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는 잔치 중에 두 관원의 머리를 들게 했다. 술 말은 관원은 복직되어 바로의 손에 잔을 들게 되었고 떡 말은 관원은 매달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술 말은 관원은 그가 복직되었을 때 요셉이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보디발의 집에서 건져달라고 간청했던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다.

이로부터 2년 후에 바로는 두 가지의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꿈을 바로의 술객과 박사들이 해석하지 못해 더 혼란에 빠졌다. 바로의 꿈은 이랬다.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흉하고 깡마른 다른 일곱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아름답고 살찐 소와 함께 섰는데 그 흉한 소가 살찐 소를 먹어버리는 꿈이었다. 그런데 바로는 다시 잠이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을 꾸었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약한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다. 바로는 놀라 꿈에서 깨었다. 그러나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 번민했다. 아침에 일어나 바로는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렀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바로가 이 꿈으로 번민할 때 술 말은 관원이 비로소 야곱을 생각해 내었다. 자신의 허물을 깨달은 그 술 말은 관원은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요셉이 불려가 바로 앞에 서게 되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이 7년간의 큰 풍년이 이룬 뒤에 7년간의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 7년의 기근은 애굽을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리를 두어 풍년 시의 애굽 땅 소출의 1/5을 거두어 각 성에 적치하고 기근을 대비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러면 애굽이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바로와 신하는 요셉의 지혜로움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임을 알았다. 그리하여 바로는 요셉을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다.

요셉은 7년간의 풍년에서 얻은 소출을 잘 비축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을 대비했다. 풍년이 지나자 기근이 찾아왔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 야곱은 양식을 사기 위하여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냈다. 요셉은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날 수 있었다. 요셉은 양식을 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들의 양식 자루에 곡식값을 치른 돈을 다시 넣고 정탐꾼의 누명을 씌워 시므온을 인질로 잡았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 보내면서 막내아들(라헬이 낳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하였다. 양식을 사온 요셉의 형제들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야곱은 애굽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하지만 구입해온 양식은 떨어져 갔다. 그렇게 양식이 떨어진 야곱은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했다. 요셉은 애굽에 도착한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많은 식량을 자루에 채워주고 돌아가는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 은잔을 넣어 도둑 누명을 씌웠다. 그렇게 베냐민을 애굽에 남아 있도록 하려 했지만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정을 억제하지 못한 요셉은 자신을 드러냈다. 요셉이 방성대곡하는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에 들렸다. 요셉은 형제들과 그렇게 입 맞추며 해후하는데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게 되고 야곱의 소식을 들은 바로는 가나안에 있

는 요셉의 형제들의 아내와 자녀 그리고 그의 부친 야곱을 데려오라고 명했다. 그리고 가족을 태우고 올 수레를 가나안 야곱의 집으로 보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다.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생업이 무엇인지를 묻자 요셉의 형제들은 목자들로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 가축들을 칠 수 없으니 고센 땅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 인해 야곱의 가족은 애굽 고센 땅에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고 후에 심히 번성하여 430년간 애굽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애굽을 7년의 대흉년으로부터 구한 총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권좌에 올랐다. 그는 애굽 사람들의 수보다 많아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애굽을 배신하고 대적과 연합하여 애굽을 칠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비둑과 라암셋의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고 감독들을 세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힘겨운 노역에 동원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언약(창15:13-14)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취할 수 있게 하시고 모세의 인도하에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7) 요셉을 산 이스마엘 사람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그의 첩 그두라 사이에서 낳은 넷째 아들이다. 애굽에서 요셉을 보디발에게 판 미디안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번호)는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난 순서이다.

©저작권/

OBS_

20030808_r2011007481_201207150000_T5_120406_120827_20121124_20221229_ver.9.07_r

성경본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 인간 야곱 이야기

삶의 적용

내 생각 말해보기

천사에 대하여/ 하늘은 열릴 수 있는가?/ 성도와
십일조/ 인간적인 삶의 양식을 가진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유/

읽을 본문/ 창세기 28장-29장/야곱의 결심

28:10)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
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13)또 본
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
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
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
리니 14)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
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
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이에 두려
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
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야곱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그곳 이름을 벰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
름은 루스더라 20)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
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2)야곱이 형 에서의 분장으로
축복을 대신 받았을 때 사용한
짐승의 가죽은 무엇이었습니
까?

창27:16

3)야곱은 몇 명의 아내와 몇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까? 그리
고 12지파의 이름은 무엇입니
까? 해설 4참조)-창29:31

4)벰엘은 무슨 뜻입니까?

창28:17

5)야곱이 압록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얻은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창32:28

6)브니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창32:30

마음에 담기



1.A)-야곱과 아브라함의 상통
하는 처세술은 무엇입니까?

1) 야곱- a)창28:18-22

2)아브라함-a)창14:17-20/

b)창12:7-9

1.B)-야곱이 서원한 십일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명령은 무
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21)나로 평
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내가 기둥으로 세
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
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읽을 본문 / 창32:24-30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

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
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
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
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
라 26)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
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
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28)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
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
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29)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
라 30)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성경 찾기

1)야곱의 이름은 어떤 이유에서 지어졌습니까?

창25:26

1)말3:8-12 2)신8:12-18

2)이삭과 야곱이 보여준 '배우
자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1)아내를 구할 때 : 창
28:1-2/창28:8

2)남편을 구할 때 : 창
29:18-20

3)야곱의 성격은 매우 계산적
이고 이기적이며, 또한 모든 수
단을 동원하여 현세인적 삶의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전형
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야곱에
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
까?

a)창22:16-18,b)창26:2-4,c)
창28:13-15

4)야곱은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점 있는 양, 아롱진 양을 자기
산업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형통한 원인은 무엇입
니까?

창30:37-43

5)하나님께서 야곱의 4아내와
12아들로 자신의 백성을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창30:4,30:9, 갈3:28-29

2)롬1:16-17, 고전12:13

6)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 대
에 걸쳐 하신 약속, 즉 천하 만
민이 복을 받는 약속은 누구에
의해 성취됩니까?

1)창22:18,창28:14, 2)갈3:29,고후
1:20